



“사랑해요” 전국에서 모인 정금순 할머니의 가족 40여명이 지난 1일 합평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후 원두막에 모여 사랑의 하트를 그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대 40명이 함께 왁자지껄 여름휴가

“가족 화목이 행복이고 효도죠”

합평 정금순 가족... 20년 간 한자리 모여 피서

“여름 휴가철에 1박2일만이라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휴식 아니겠어요? 효도이기도 하구요.”

할머니(1대), 아들·딸(2대), 손자·손녀(3대), 증손자·증손녀(4대) 등 40여명이 함께 모여 여름휴가를 보내는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된 지난 1일 합평 돌머리 해수욕장. 대학생들의 MT 행렬도 아니고 단체 관광객도 아닌 한 가족 40여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며 돌아다니자 주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이냐?”라며 물기까지 했다.

주인공은 정금순(84·합평군 대동면 백호리) 할머니 이하 4대 가족들. 미국 LA에 어학연수를 떠난 정 할머니의 손녀와 임신 중인 손녀, 회사일 때문에 빠진 손자 등 7명을 제외한 39명의 대가족이 합평 돌머리 해수욕장을 찾았다.

“저희 가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여름 휴가를 꼭 함께 보냅니다. 매년 8월15일은 가족 여행가는 날이라고 못박아두어서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비워둔답니다.

올해는 각자 일이 있어서 조금 당겨서 왔네요.”

정 할머니가 낳은 5남 2녀 가운데 장남인 서준재(63·광주시)씨는 여름 휴가 1주일 전부터 음식 주문 해놓으라, 해수욕장 원두막 예약하라 바쁘게 움직였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음식이 부족하거나 40여명이 같이 앉을 자리가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10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도착한 정 할머니 가족이 준비한 음식만 해도 한 트럭 분량.

오늘의 메인 메뉴는 바비큐 요리를 위한 돼지 한 마리와 장어, 소고기, 닭 5마리다. 뿐만 아니라 수박 5통, 복숭아·포도·바나나 한 박스 등 과일들이 아이스박스 안에 가득 담겨있다. 반찬까지 합하면 ‘상다리’가 버티지 못할 정도다. 40여명이 모두 앉아 실만한 곳도 없어 30명이 앉을 수 있는 원두막 두 채를 빌렸다.

담소를 나누며 두 시간에 걸친 점심을 먹고 난 후 설거지는 남자들의 몫. 정 할머니를 제외한 2~4대의 남자들이 모두 모여 설거지를 하는 동안 여자들은 수개월간 만나지 못해 참았던 수다를 즐기며 소화를 시킨다.

정 할머니의 손자 서영화(33·대구구시)씨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가 출산율이라는데 우리 가족은 그런 고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휴가는 물론 명절마다 함께 모여 뒤엎겨 잠을 자는 모습은 마치 일개 소대의 군인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점심을 먹은 후 물놀이하는 팀과 그물 낚시하는 팀이 나눠져 게임을 시작했다. 4대 이정훈(1)군은 엄마와 증조 할머니 품에 번갈아 가며 안개 낚시를 즐겼다. 오후 5시까지 이어진 대가족의 왁자지껄 휴가는 “저녁밥 먹으러 가자”라는 정 할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마무리됐다. 46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게 최근 다시 지은 정 할머니 집에서 저녁밥을 먹은 후 대가족의 여름 휴가는 마무리됐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지루한 장마 끝나니 ...

‘밤상 물가’ 폭등 벼 병해충 ‘비상’

채소 등 식료품 출하량 줄고 값 뛰어

벼 흰잎마름병 우려 ... 고추·참깨 역병도

서민들의 ‘밤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뒤늦게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든데다 작황마저 좋지 않아 식료품 값이 대거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사)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상추(100g)가격은 8월 현재 1천180원으로 지난달 530원에서 무려 122.6%나 폭등했다.

호박(애호박·500g)은 1천380원으로 한 달 사이 27.7%가, 시금치(400g)도 1천580원으로 23.4%나 올랐다.

배추(2.5kg)도 1천480원이던 것이 20.2%가 올라 1천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마늘(깐마늘·100g)도 620원으로 한 달 사이 19.2%가량 오른 시세를 보이고 있다.

삼겹살(500g)은 1만1천4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1%가, 두 달 전보다 35.7%나 올랐다.

(사)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채소와 과일류는 장마 때문에, 돼지고기는 휴가철 특수로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올 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 일부 논·밭에 흰잎마름병과 벼멸구, 고추역병 등이 발생, 병충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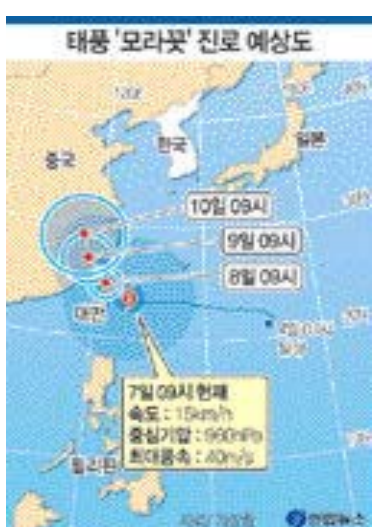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남과 완도, 진도, 신안 등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벼 흰잎마름병과 줄무늬마름병, 잎도열병 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올 여름 장마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된 때문으로, 아직까지는 피해를 입은 곳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고

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병충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또 고추와 참깨의 역병 및 탄저병, 토마토 반점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으며, 사과와 복숭아 그리고 포도 등 과수에서도 갈색무늬병과 손나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마 후 살아남은 해충의 급격한 번식이 우려돼 방제가 필요하다”며 “병이 발생하지 않은 논·밭을 자주 살펴 발생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태풍 ‘모라콧’ 영향 40mm 비

광주·전남 휴일에도 대체로 흐린 날씨

주말인 8일 광주·전남지역은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들어 흐리고 가끔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은 제 8호 태풍 모라콧(Morakot)의 간접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7일 예보했

다.

기상청은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40mm,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의 분포가 될 전망이다. 바다의 물

결은 1.0~4.0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은 휴일인 9일에도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24~30도,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0~12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에 따라 광주지역과 비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너울이 주말과 휴일 전남 해안지역에 유입되면서, 만조시 해일 가능성도 있다”며 “해안 저지대 주민과 피서객, 낚시꾼 등은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z@kwangju.co.kr

나로호 빠르면 14일 발사

연기는 ‘측정 오류’ 때문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발사를 연기시킨 ‘기술적 이슈’는 단순한 측정오류인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기술적 이슈를 둘러싼 이런 분석이 수일 내 러시아 측의 책임 있는 기관을 통해 공식 확인되

면 발사 일정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은 1단 연소시험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엔진 보조펌프의 회전수에 대해 이를 제외한 압력, 유량, 엔진 추력 등 1단 연소시험의 다른 모든 측정값이 정상적인 만큼 물리적 현

상이 아닌 측정센서의 오류로 결론내렸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은 일단 오는 14~16일을 나로호 발사일로 제안해왔다”며 “교과부 제2차관 주재로 나로호 발사준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발사일차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송광사 템플 스테이 ▶ 3면 문화센터 ‘불황 코드’ ▶ 4면 체질에 맞는 여름 보양식 ▶ 5면 Books ▶ 8·9면 독자와 함께 ▶ 13면 축구 한·일 올스타전 ▶ 14면

사랑을 만들어가는 50년입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걸어온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크기, 병후-병후유해 제거, 피로회복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를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질병 및 경각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허전, 피로, 수족저변 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